

# 자연을 위한 성장, 사람을 향한 발전

## 친환경 기업 삼성SDI 울산사업장

종가(宗家)에는 예로부터 웅숭깊은 기운이 서려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삼성SDI 역시 지난 1970년 삼성NEC(주)를 모태로 40여년의 세월을 굳건하게 지켜왔다. 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 위치한 삼성SDI 울산사업장은 약 70만평의 부지에 16만 여평의 건평을 중심으로 명문종가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브라운관을 만들던 최고의 전성기 1900년대를 지나 지금은 녹색성장과 함께 2차전지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삼성SDI 울산사업장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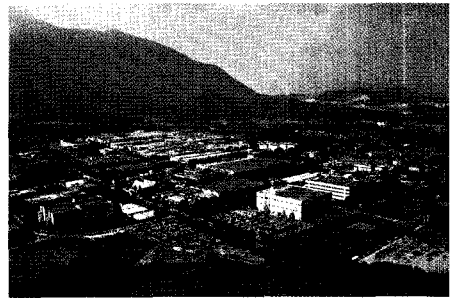
글 | 서희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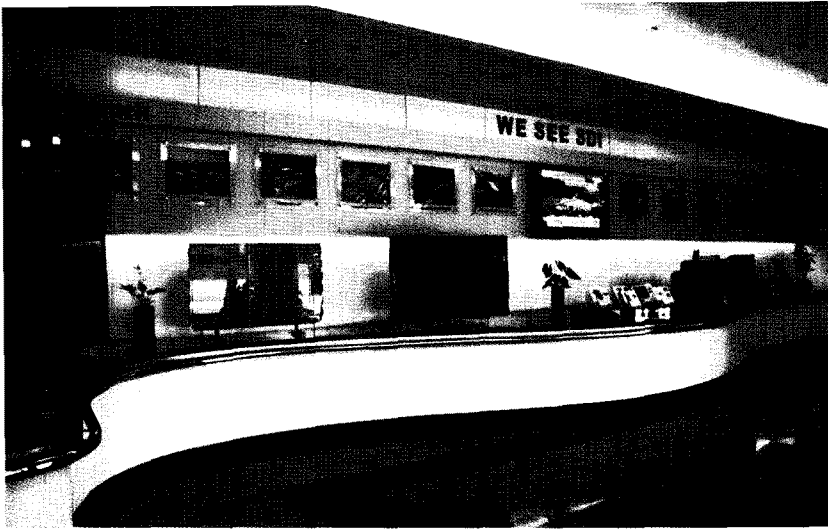
### □ 삼성SDI의 명문종가 '울산사업장'

1975년부터 반도체를 생산하고 브라운관의 전성기였던 1980~90년대를 주름잡았던 기업. 최근에는 PDP의 생산과 휴대폰용 LCD의 세계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삼성SDI는 1970년 삼성NEC(주)를 전신으로 40여 년의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했다.

특히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울산사업장 부지는 좌, 우로 간월산과 영취산이, 뒤로는 신불산이 감싸고 있으며 그 앞으로 낙동강이 흐르는 명당중의 명당으로 꼽힌다. 총 70만 평의 부지에 건평만 16만 여평에 달할 정도로 넓은 사업장을 갖고 있는 울산사업장에는 현재 총 1,300여 명의 직원들이 디스플레이 장치를 비롯해 브라운관, 2차 전지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차세대 전지 공장을 준공하며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던 삼성SDI는 2001년에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터치패널을 생산했으며 같은해 10월에는 멀티디스플레이 브라운관(MDT)을 개발하고 초박형 리튬이온전지를 선보이는 등의 눈부신 성장을 이어갔다. 그 결과 지난 2002년에는 헝가리에 브라운관 공장을 준공하고 휴대폰용 LCD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만들었다.





## 건강검진

### 직원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검진 경험기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삼성SDI 울산사업장 직원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협회와의 첫 인연을 맺게 된 셈이다. 협회를 찾은 삼성SDI 임직원들은 건강검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모았다.



차득준 과장 (부산운영팀)

건강검진은 그동안 꾸준히 받았었는데 건강관리협회와 함께한 건 올해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동료들 말에 의하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처음 보여주셨던 친절과 서비스 그대로 변치 말고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내년엔 가까운 이곳으로 건강검진 받으러 가려고요. (..)



문경선 사원 (경영지원팀)

회사에 들어와 처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처음이라 무슨무슨 검사가 있을지 몰랐는데 궁금하지 않게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여자라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검사들에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겁도 났었는데 괜한 걱정이다 싶게 편안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조정숙 사원 (인사팀)

큰 병원에 비해 차이가 없을 정도로 환경과 검진기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문앞에서부터 나설 때까지 질서를 유지해 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모습이 한결같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기본 좋게 건강검진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력이라는 자원만을 가지고 만들어간 성과라 직원들은 자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부산운영팀의 차득준 과장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지만 최근 들어오는 신입들이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이곳에 뿌리를 내린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 제12회 경제정의기업상 대상을 수상한 건 직원들의 이 같은 단합 때문이 아닐까.

## □ 녹색성장의 중심에서다

친환경 경영, 녹색성장이 화두가 된 지금, 삼성SDI 역시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충전해서 사용하는 2차전지 분야는 우리보다 10년 정도 앞서가던 일본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일례로 지난해 3월과 9월, 전문 조사기관인 일본의 III가 실시한 2차 전지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유수의 업체들을 제치고 두 차례 모두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최근 BMW사와 2010년 전기자동차 시제품을 제작하고 2013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20년까지 8년간 BMW에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독점 공급할 예정이라 울산사업장에도 큰 활기가 예상된다.

## □ 나눔, 사내문화의 초석이 되다

그러나 삼성SDI의 기업문화 바탕에는 ‘나눔’이라는 화두가 있다. 울산사업장 역시 1부서 1봉사팀으로 구성된 56개의 봉사팀과 임직원 가족봉사팀이 정기적으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의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희망과 정을 나누기 위한 활동이 사내문화의 초석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그래서 울산사업장의 임직원들은 자신을 비롯해 가족까지 사내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와 정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역시 봉사활동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위한 경영에 앞서 자연을 향한 발전을 고민하는 삼성SDI. 그리고 그 중심에서 뜨거운 동력 역할을 하는 울산사업장의 면모는 명문 종가다웠다. ☺

